관광객 후기 비난한 日사찰 '물의'

고야산 세키쇼인, 숙박시설 저평가에 '발끈'

박영빈 객원기자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불교문화를 체험하고자 일부러 일본 불교성지를 코스에 넣는 여행자들도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유명 템플스테이 시설에서 외국인 숙박객들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7월 30일 '뉴스위크' 일본판은 영국의 '가디언' 등 여러 외신과 SNS 등에 올라온 후기 등을 인용해 이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문제가 된 사찰은 일본 와카야마현, 고야산에 소재한 세키쇼인(赤松院). 고야산은 약 1,200년 전 일본의 고승인 쿠카이(空海)대사가 개산한 일본불교의 대표적인 성지다. 2004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국제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불교성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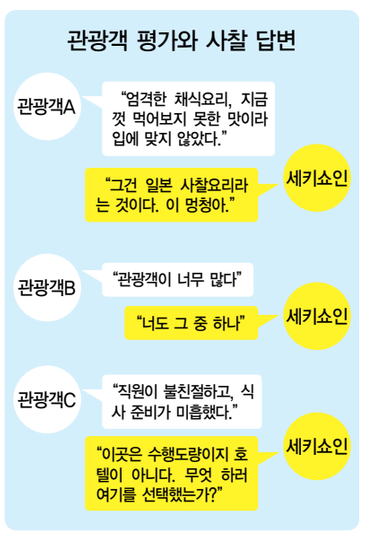
고야산에서는 중세이래로 일본전역에서 찾아오는 순례자들을 위해 슈쿠보(宿坊)라는 전통적인 숙박시설을 갖춰왔다. 현대에 들어서 슈쿠보는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템플스테이의 성격을 갖게 됐다.

실제 일본에서도 고야산의 슈쿠보들은 '일본불교문화를 체험하는 훌륭한 숙박시설'로 홍보되고 있다. 최근 이 슈쿠보들은 외국인 순례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국제적인 숙박 예약 사이트들에 등록을 하고 고객들을 받고 있다.

세키쇼인의 슈쿠보 역시 숙박 예약 사이트인 부킹닷컴(Booking.com)에 등록되어 있다. 부킹닷컴에 등록된 숙소들은 실제 숙박객들의 점수와 후기, 그에 대한 숙소 측의 답변들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숙박객들의 후기에 대한 세키쇼인 슈쿠보 측의 신랄한 답변이 SNS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7월 23일 캐나다의 자유기고가 멜리사 마틴은 자신의 트위터에 외국 숙박객들의 후기와 세키쇼인 측의 후기를 스크린샷으로 게재했다. 이 트위터는 8월 5일 기준 1만8000회 이상의 리트윗과 3만9000회 이상의 호응을 받았다.

외국인 숙박객들은 대부분 '식사는 소박한 채식, 양이 부족하다' '사찰이나 불교의 역사, 스님들의 생활에 대한 설명이 없다' '영어가 통하지 않는다' '환영받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등을 불만 사항으로 꼽았다.



도쿄올림픽 앞서 여행자 급증
사찰음식 · 역사 설명 부족 등
슈쿠보 이용객들 후기로 지적

세키쇼인, 신랄한 답변했지만
정중함 부족하고 욕설도 담아
다니엘 스님 "경솔한 점 죄송"


일본 불교성지로 유명한 고야산 세키쇼인 전경. 사진출처=부킹닷컴

해당 불만사항들에 대한 세키쇼인 슈쿠보 측은 '이곳은 수행도량이지 호텔이 아니다, 대체 무엇 하러 여기를 선택했는가' '서양인이라고 특별 취급할 이유도 없고, 굳이 친절히 대할 필요가 없다'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이해한다면 좋겠지만 당신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렇게 스님들의 생활이 궁금하면 삭발하고 출가하라. 이상' 등의 신랄하고 정중하지 못한 답변을 공개적으로 투고했다.

또 프랑스출신 숙박객의 '관광객이 너무 많다'는 불만사항에는 '너도 그 중 하나'라며 비난했다. 특히 익명의 이용자가 투고한 '아침식사는 엄격한 채식요리, 지금껏 먹어보지 못한 맛이라 입에 맞지 않았다'라는 불만사항에 세키쇼인은 '그래, 그건 일본의 사찰요리라는 것이다. 이 멍청아'라는 매우 속된 표현으로 회답하며 마지막에는 영문으로 욕설을 추가했다.

이처럼 부적절한 답변이 문제로 불거지자, 현재 해당 답변들은 모두 삭제됐다. 부킹닷컴 측에서도 세키쇼인 슈쿠보에 공개적으로 고객을 비난하는 답변을 자중해달라는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영국의 '가디언'은 해당 답변들을 투고한 다니엘 키무라 스님을 취재, 스님의 입장을 밝혔다. 다니엘 스님은 미국 출신으로 15년 전에 세키쇼인에서 출가, 현재는 슈쿠보에서 외국인들의 대응을 담당하고 있다.

다니엘 스님은 "화가 난 마음에 경솔히 답변한 것을 깊게 후회한다. 앞으로 표현을 자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니엘 스님은 이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래 영어권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증가했다. 이 중엔 무례한 이들도 있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여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스님은 "사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과 채식식단에 대한 점은 숙박 시에 충분히 말하고 있다"며 "출가자이지만 인욕하지 못할 때도 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가디언에 밝혔다.

티베트 스님들, 中공산당 시설 학대 경험

티베트 인권 민주센터
스님들 증언 발표 '눈길'

공산주의 찬양 · 군사훈련
비구니스님들 성적학대도

중국 공산당이 민족동화정책의 일환으로 티베트 자치구에 설치한 재교육시설에서 비구니스님들에 대한 성적학대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8월 1일 일본의 '더 에폭 타임즈'는 '티베트 인권과 민주주의 센터(TCHRD)'의 발표를 인용 보도했다.

TCHRD는 지난달 28일 티베트 자치구 응악추(Ngag-chu)시에 있는 재교육시설에 수감됐던 스님의 증언을 전했다. 스님의 안전을 위해 증언은 익명으로 발표됐다.

이 스님은 수개월간의 구속에서 풀려난 후 "중국정부는 재교육시설을 교육기관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완전히 거짓말이며 형무소의 일종"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시설에서는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을 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애국교육'을 실시한다.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노래 부르거나 군사훈련을 받는다. 또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와 다른 스승들을 비판할 것을 반복해서 강요한다"고 증언했다. 더불어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잔혹한 것은 비구니스님들에 대한 학대"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많은 비구니스님들이 혹독한 군사훈련에서 기절하거나 탈진해서 쓰러지곤 한다. 간수와 당 간부들은 쓰러진 스님들을 치료한다며 자신들의 방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스님들을 성폭행과 고문 등 철저하게 성적학대를 가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며 참혹한 심정을 전했다. 이어서 "간수 중 몇몇은 약품이나 전기충격 등으로 비구니스님들을 기절시켜 방으로 끌고 간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애국교육에서 군복을 입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티베트 비구니스님들. 사진출처=TCHRD 공개영상 갈무리

또 시설에 수감됐다가 인도로 망명한 티베트인 여성은 "재교육시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몸이 더러워졌다는 생각에 절을 나와 환속할 수밖에 없었다. 간수들은 '환속해 사회에 이바지하는 노동력이 돼야 한다'는 명목 하에 공공연하게 성행위를 강요하고, 성폭력을 정당화했다"고 증언했다.

중국정부는 해당 증언들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관련 의혹들에 대해 '티베트를 모국에서 분리시키려는 달라이라마 도당의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계속되는 중국정부의 티베트 불교 탄압에 국제사회의 주목이 쏠리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겨울나기' 돌입한 히말라야 스님들

해발 5,500m 위치… 1년 중 7개월 눈 속에 고립

전 세계가 이례적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인도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한 사원은 벌써 겨울나기 준비에 한창이다.

채널뉴스아시아는 8월 7일 겨울나기에 돌입한 인도 히말라야 산맥 코믹(Komik) 마을의 트나규드 곰파(Tnagyud Gompa) 불교 사원 스님들 모습을 조명했다.

아직 겨울이 오기 전인 해당 사원에는 현재 약 20명의 스님들이 생활 중이다. 스님들은 신도들을 맞이하기 위해 사중 행사를 준비하는 한편, 일반적으로 매일 최소 두 번 기도 의식을 진행한다. 1년에 한 달 반 간 진행되는 하안거 동안에는 스님들이 하루 종일 기도한다.

하지만 해발 5,500m 고지에 위치한 이 사원은 짧은 여름이 끝나면 1년 중 7개월 동안 눈 속에 고립된다. 사원이 위치한 코믹 마을은 최근 몇 년간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대설이 내리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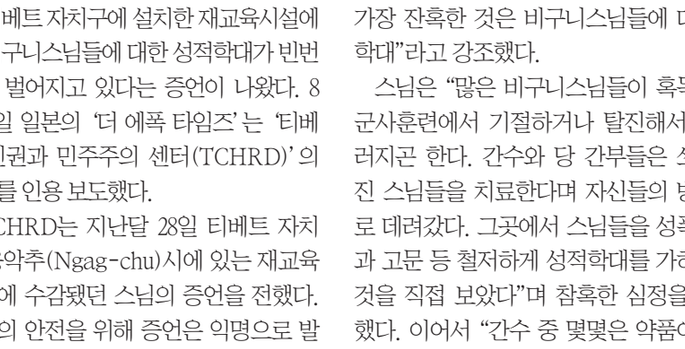
스님들 중 일부는 겨울 동안 사원을 떠나기도 한다. 이에 스님들은 벌써부터 땔감과 연료를 모으고, 겨울 식량 마련에 여념이 없다.

사원 관리인 퍼마 샌드럽은 "스님들과 종무원, 거주자들이 가장 바쁜 달을 보내고 있다"며 "기도와 사중 살림에도 집중하는 한편, 수개월 지속될 겨울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해에는 특히 어마어마한 양의 눈이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완두콩, 감자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것은 스님들의 식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한편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사원 대부분은 티베트 스님들이 거주 중이다. 티베트 스님들은 약 50년 전 중국의 종교 탄압에 의해 히말라야 산맥에 모여 살기 시작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위패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 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 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관세음보살님 청정성지 관세음보살님
기도삼매 친견 일천성불 받는 도량
미타산 불관사
불사 자비 보행 25년 불사중
불자인연 행자승 구합니다.
26세 계유생 27세 임신생
34세 을축생 35세 갑자생
42세 정사생 43세 병진생
50세 기유생 51세 무신생
62세 정유생 63세 병신생
준비서류
기본증명서 …… 1통
가족관계증명서 …… 1통
혼인관계증명서 …… 1통
주민등록등본 …… 1통
주민등록초본 …… 1통
범죄경력조회 …… 1통
(경찰서에서 발급해줍니다)
미타산 불관사
주소 : 경남 의령군 부림면 미타로2북길 133
전화 상담 : H·P 010-7578-6788


철골조 사찰신축전문

사찰지붕개량
천년와 기와 지붕개량
공사기간단축(3분의1)
공사금액 목조보다 60%절감
010-3911-1775 / 011-9726-9288
